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2013년 3월 14일 | Vol. 4 No. 3

ISSN 2093-3282

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부용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이상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shlee2@kiep.go.kr, Tel: 3460-1287)

박진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jhpak@kiep.go.kr, Tel: 3460-1285)



차 례 ●●●

1. 지방 양회(兩會) 개요
2. 주요 인사변동
3. 지난 5년의 경제실적
4. 2013년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운영 방향
5.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3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 양회(兩會)를 앞두고, 지난 1월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일제히 열림.

 - 양회는 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것으로 지방 양회는 매년 초에 개최되는 지방 최대 정치 행사이며, 올해는 5년 임기의 지방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여서 더욱 주목을 받음.
 - 2013년 지방 양회에서는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지난 5년의 경제실적 평가와 함께 향후 5년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2013년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운영 방향이 제시되었음.

- ▣ 지방 양회 기간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 에 따르면 각 지방은 올해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경제성장률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24개 지역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책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목표치를 평균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0.6%에 달함.
 -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치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낮게 책정된 지역은 베이징과 허난뿐이며, 모든 지역에서 농촌주민소득을 도시주민소득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

- ▣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각 지역은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함에 주목해야 함.

 -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생태 건설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민생 개선 중점사업으로는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보장성주택 건설 등이 강조됨.
 - 국유경제와 세계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 심화와 대외무역방식 전환, 외자 유치의 질과 효율성 향상 및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도 지방 양회의 중요한 이슈임.
 - 이러한 이슈들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비슷하나 구체적인 실행방식에는 지역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이 밖에 푸젠(福建)과 대만의 경제협력 강화, 텐진(天津)의 빈하이(濱海)신구 개발·개방 가속화와 같이 일부 지역은 특화된 이슈를 갖고 있음.

1. 지방 양회(兩會) 개요

■ 2013년 3월 초 개최되는 전국 양회를 앞두고, 중국 각 성급 단위(성 · 직할시 · 자치구)에서 지방 양회가 일제히 열림.

- 지방 양회는 지방 인민대표대회(이하 ‘지방 인대’)와 정치협상회의(이하 ‘지방 정협’)를 지칭하며, 매년 초에 1회 개최되는 지방 최대 정치 행사로, 올해는 5년 임기의 지방 지도부가 교체되는 해여서 더욱 주목을 받음.
- 31개 성급 단위의 지방 양회가 거의 한 달에 걸쳐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1월 19일 장쑤(江蘇), 허난(河南), 윈난(雲南)에서 시작해 2월 1일 네이멍구(內蒙古)를 마지막으로 약 열흘 간의 짧은 기간에 신속히 개최됨.

■ 지방 양회의 주요 업무는 △ 지방정부 수장 선출¹⁾ △ 전국 양회에 참석할 대표단 구성 △ 정부의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검토 · 확정하는 것임.

- 지방 인대에서는 성장·부성장, 고급인민법원 원장, 인민검찰원 검찰장 같은 지방 정부·사법기관의 수장을 선출하고, 지방 인대 폐회 기간에 업무를 수행할 상무위원회(주임, 부주임 등)와 전국 인대에 참석할 대표단을 구성함.²⁾
- 또한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등 주요 정책문건과 정부 예결산을 심사함.³⁾
 - ‘정부업무보고’는 인대에서 발표되는 정책문건 중 가장 핵심적인 문건으로, 정부의 지난 정책성과를 검토하고 올해의 주요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향후 1년간의 정부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⁴⁾
- 지방 정협에서는 정협 주석·부주석 같은 정협 지도부 및 전국 정협에 참석할 대표단을 선출하며,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등에 관해 논의함.

1) 대부분 사전에 결정된 인사를 공식으로 확정해주는 형식적인 절차임. 예를 들어 베이징(北京) 시장직의 경우, 전임자 귀진룡(郭金龍)이 18차 당대회 종료 후 베이징시 당서기로 승진하여 공식이 되자 왕안순(王安順)이 ‘대리 시장’으로 임명되어 임시로 업무를 맡아왔고, 이번 양회에서 왕안순이 정식 시장으로 선출됨.

2) 지방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당서기가 겸직함. 단 베이징, 상하이와 같이 지역 당서기가 정치국원인 지역, 신장(新疆), 티벳(西藏)과 같은 특수한 몇몇 지역의 경우에는 당서기가 주임을 겸직하지 않음.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민대표대회는 공산당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함. 앞서 열린 당 행사(당대회와 경제업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이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하게 됨. 조영남(2009),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나남출판사.

4) ‘정부업무보고’는 보통 1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1년 동안의 정책 목표만을 다루나, 올해와 같이 기수(屆數)가 바뀌는 해에는 지난 5년간의 정책 성과와 향후 5년 동안의 정책 목표를 추가적으로 검토함.

2. 주요 인사변동

■ 이번 지방 양회에서는 예년에 비해 인사변동이 많았음.

- 총 8개 지역의 지방정부 수장(성장·시장·자치구 주석)과 12개 지역의 지방 인대 주임, 13개 지역의 정협 주석이 교체됨.
- 상하이(上海), 쓰촨(四川), 지린(吉林), 구이저우(貴州) 4개 지역에서는 성장(시장), 지방 인대 주임, 정협 주석이 모두 교체됨.
- 이는 2012년 말 18차 당대회 이후 당내 인사이동이 대거 이뤄짐에 따라 지방 지도부에 공석이 많이 생겼기 때문임.
- 상하이의 경우, 전임 시장인 한정(韓正)이 당서기로 임명되어 시장 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 새 시장을 선출함.
- 산시(山西)의 경우, 전임 성장인 왕진(王君)이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직을 맡게 되어 이번 양회에서 새 성장을 선출함.

■ 특히 새롭게 선출된 인사들 중 리샤오핑(李小鵬) 산시 성장과 연임한 이들 가운데 황치판(黃奇帆) 충칭(重慶) 시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음.

- 리샤오핑은 리핑(李鵬) 전 총리의 아들로, 국유전력기업의 CEO로 근무하다가 2008년 산시 부성장을 맡았고, 이번 양회에서 4년 만에 성장으로 승진함.
- 2009년부터 충칭 시장으로 재직해온 황치판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 서기의 측근으로 알려져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재선에 성공함.

■ 중국 통치 엘리트 사이에서 고학력자와 인문·사회 분야 전공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경향이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 지도부에서도 나타남.

- 31명의 정부 수장(성장·시장·자치구 주석)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26명은 대학원 교육을 이수함.
- 리빈(李斌) 안후이(安徽) 성장(경제학), 뤼후이닝(駱惠寧) 칭하이(青海) 성장(경제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가 6명에 달함.
- 또한 정부 수장의 70% 이상이 경제학 등 인문·사회 계열을 전공한 것으로 나타남⁵⁾

5) 「31省市自治區完成換屆 行政一把手少數民族近2成」 (2013. 2. 4), 『新華網』.

표 1. 중국 성급(성·직할시·자치구) 행정단위 주요 지도부 명단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시장·성장·자치구주석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정치협상회의 주석		
		이름	출생연도	학력·이력·특이사항	이름	출생연도	학력·이력·특이사항	이름	출생연도	학력·이력·특이사항
동북	랴오닝(遼寧)성	첸정가오 (陳政高)	1952	- 경제학 석사 - 前 선양(沈陽)시 당서기, 랴오닝성 부성장	왕민 (王珉)	1950	- 공학 박사 - 前 지린성 당서기, 現 랴오닝성 당서기	샤더런 (夏德仁)	1955	- 경제학 박사 - 前 다롄(大連)시 시장
	지린(吉林)성	바인차오루 (巴音朝魯)	1955	- 경제학 석사 -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상무서기, 지린성 부성장 - 소수민족(몽골족)	왕루린 (王儒林)	1953	- 경제학 석사 - 前 지린성 성장, 現 지린성 당서기	황엔밍 (黃燕明)	1955	- 정치학, 中央党校在职研究生学历 - 前 지린성 당 조직부 부장
	헤이룽장(黑龍江)성	왕셴쿠이 (王憲魁)	1952	- 경제관리, 대학원과정 이수 - 前 간쑤성 당부서기, 장시성 당부서기	지빙쉬안 (吉炳群)	1951	- 중문학 학사 - 前 중앙선전부 부부장, 現 헤이룽장성 당서기	두위신 (杜宇新)	1953	- 법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하얼빈(哈爾濱)시 당서기
화북	베이징(北京)시	왕안순 (王安順)	1957	- 경제학 석사 - 前 상하이시 당부서기, 베이징시 정협 주석	두더인 (杜德印)	1951	- 농업경제학 석사 수료 - 現 베이징시 당부서기	지린 (吉林)	1951	- 법학 석사 - 前 베이징시 부시장
	톈진(天津)시	황싱궈 (黃興國)	1954	- 경영학 박사 - 前 저장성 부성장, 톈진시 부시장	샤오화이위안 (肖懷遠)	1953	- 정치경제학 대학원과정 이수 - 現 톈진시 선전부장	허리핑 (何立峰)	1955	- 경제학 박사 - 前 샤먼(廈門)시 당서기
	허베이(河北)성	장칭웨이 (張慶偉)	1961	- 공학 석사 - 前 중국상용비행기유한공사(COMAC) 이사장	장칭리 (張慶黎)	1951	- 정치학 석사 - 前 티베트자치구 당서기, 現 허베이성 당서기	푸즈팡 (付志方)	1956	- 공학 석사 - 前 카이펑(開封)시 시장
	산둥(山東)성	장다밍 (姜大明)	1953	- 철학 학사 -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지난(濟南)시 당서기	장이강 (姜異康)	1953	- 경영학 석사 - 前 충칭시 당부서기, 現 산둥성 당서기	류웨이 (劉偉)	1958	- 경제관리 학사 - 前 산둥성 당 조직부 부장
화동	상하이(上海)시	양슝 (楊雄)	1953	- 경제학 석사 - 前 상하이항공공사 이사장, 상하이시 당부서기	옌이추이 (殷一璀)	1955	- 법학 석사 - 現 상하이시 당부서기	우즈밍 (吳志明)	1952	- 관리학 석사 - 前 상하이시 공안국장
	장쑤(江蘇)성	리쉐용 (李學勇)	1950	- 공학 학사 - 前 과학기술부 부부장, 장쑤성 부성장	뤄즈쥰 (羅志軍)	1951	- 법학 석사 - 前 장쑤성 당부서기·성장, 現 장쑤성 당서기	장롄진 (張連珍)	1951	- 중앙당교 석사 - 前 장쑤성 부성장
	저장(浙江)성	리강 (李強)	1959	- 공상관리 석사 - 前 저장성 당부서기, 윈저우(溫州)시 서기	샤오오룽 (夏竦龍)	1952	- 경제학 박사 - 現 저장성 당서기	차오촨슈 (喬傳秀)	1954	- 정치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전국총공회 부주석
화남	푸젠(福建)성	쑤수린 (蘇樹林)	1962	- 관리학 석사 - 前 CNPC 총경리, 푸젠성 부성장	유취안 (尤權)	1954	- 경제학 석사 - 前 국무원 상무 부비서장, 現 푸젠성 당서기	장창핑 (張昌平)	1954	- 공학 석사 - 前 푸젠성 부성장
	광둥(廣東)성	주샤오단 (朱小丹)	1953	- 경제관리 대학원과정 이수 - 前 공청단 광저우(廣州)시 당서기, 광둥성 부성장	황룽윈 (黃龍雲)	1951	- 경제학 석사 - 前 광둥성 정협주석	주밍궈 (朱明國)	1957	- 중앙당교 석사 - 前 충칭시 공안국장 - 소수민족(여족)
	하이난(海南)성	장딩즈 (蔣定之)	1954	- 공학 석사 - 前 우시(無錫)시 당서기, 하이난성 부성장	뤄바오밍 (羅保銘)	1952	- 사학 석사 - 前 하이난성 성장, 現 하이난성 당서기	위신 (于迅)	1952	- 경제학 석사 - 前 하이난성 부성장
중부	산시(山西)성	리샤오펑 (李小鵬)	1959	- 공학 학사 - 前 중국화능(華能)그룹 총경리, 산시성 부성장	위안춘청 (袁純清)	1952	- 경영학 박사 -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現 산시성 당서기	쉐엔중 (薛延忠)	1954	- 법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산시성 부성장
	안후이(安徽)성	리빈(李斌)	1954	- 경제학 박사 - 前 지린성 부성장,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	장바오순 (張寶順)	1950	- 경제학 석사 -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現 안후이성 당서기	왕밍팡 (王明方)	1952	- 공학 학사 - 前 안후이성 당교교장
	장시(江西)성	루신서 (鹿心社)	1956	- 공학 학사 - 前 국토자원부 부부장, 간쑤성 당부서기	쑤룽 (蘇榮)	1948	- 경제학 석사 - 前 간쑤성 당서기, 現 장시성 당서기	황웨이진 (黃韋金)	1953	- 건축학 학사 - 前 중앙통전부 부부장
	허난(河南)성	궈창마오 (郭庚茂)	1950	- 정치경제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허베이성 성장	루잔공 (盧展工)	1952	- 건축학 학사 - 前 전국총공회 부주석, 푸젠성 당서기, 現 허난성 당서기	예동송 (叶冬松)	1958	- 경제학 석사 - 前 국토자원부 부부장

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표 1. 계속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시장·성장·자치구주석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정치협상회의 주석		
		이름	출생연도	학력·이력·특이사항	이름	출생연도	학력·이력·특이사항	이름	출생연도	학력·이력·특이사항
서부	후베이(湖北)성	왕귀성 (王國生)	1956	- 정치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장쑤성 부서기, 후베이성 부성장	리홍중 (李鴻忠)	1956	- 사학 학사 - 前 선전(深圳)시 당서기, 후베이성 성장, 現 후난성 당서기	양송 (楊松)	1950	- 물리학 학사 - 前 우한(武漢)시 당서기
	후난(湖南)성	쉬쇼우성 (徐守盛)	1953	- 정치경제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수첸(宿遷)시 당서기, 간쑤성 성장	저우창 (周強)	1960	- 법학 석사 -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후난성 성장, 現 후난성 당서기	첸치우파 (陳求發)	1954	- 공학 학사 - 前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 소수민족(요족)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바터얼 (巴特爾)	1955	- 경제학 석사 - 前 네이멍구자치구 당 기술검사위원회 서기 - 소수민족(몽고족)	왕진 (王君)	1952	- 공학 학사 - 前 산시성 성장, 現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	런야핑 (任亞平)	1952	- 마르크스주의철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네이멍구자치구 부주석
	광시(廣西)자치구	마박오 (馬嫻)	1954	- 경제학 학사 - 前 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 경제연구실 주임, 광시자치구 부주석	펑칭화 (彭淸華)	1957	- 경영학 박사 - 前 중앙조직부 연구실 주임, 주(駐)홍콩 연락관공실 주임, 現 광시자치구 당서기	첸치와 (陳際瓦)	1954	- 법학 학사 - 前 광시자치구 당 조직부 부장
	충칭(重慶)시	황치판 (黃奇帆)	1952	- 공상관리 석사 - 前 상하이시푸둥신구관리위원회 부주임, 충칭시 부시장	장쉬안 (張軒)	1958	- 법학 학사 - 現 충칭시 당부서기	쉬징예 (徐敬業)	1951	- 경제관리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국유기업 기공위(紀工委) 서기
	쓰촨(四川)성	웨이홍 (魏宏)	1954	- 경제학 석사 - 前 야안(雅安)시 서기, 쓰촨성 부성장	왕둥밍 (王東明)	1956	- 철학 학사 - 前 중앙조직부 부부장, 現 쓰촨성 당서기	리충시 (李崇禧)	1951	- 경제학 학사 - 前 쓰촨성 당 부서기
	구이저우(貴州)성	첸민얼 (陳敏爾)	1960	- 법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저장일보 당서기, 저장성 부성장	차오커즈 (趙克志)	1953	- 정치학 석사 - 前 구이저우성 성장, 現 구이저우성 당서기	왕푸위 (王富玉)	1952	- 경영학 박사 - 前 구이저우성 당 부서기 - 소수민족(회족)
	윈난(雲南)성	리지형 (李紀恆)	1957	- 농업경제관리학 박사 - 前 난닝(南寧)시 당서기, 윈난성 부성장	친광룽 (秦光榮)	1950	- 공학 석사 - 前 윈난성 성장, 現 윈난성 당서기	뤄정푸 (羅正富)	1952	- 과학사회주의 석사 - 前 윈난성 부성장 - 소수민족(이족)
	티벳(西藏)자치구	뤄샹장춘 (洛桑江村)	1957	- 마르크스주의철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공청단 티벳자치구 당서기, 티벳자치구 부주석 - 소수민족(장족)	바이마즈린 (白瑪赤林)	1951	- 정치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티벳자치구 주석	파바라·거례량제 (帕巴拉·格列朗傑)	1940	- 종교학 학사 - 現 전국정협부주석 - 소수민족(장족)
	산시(陝西)성	러우진첸 (劉志強)	1956	- 공학 박사 - 前 공업정보화부부부장, 산시성 부성장	자오정용 (趙正永)	1951	- 물리학 학사 - 前 산시성 성장, 現 산시성 당서기	마중핑 (馬中平)	1950	- 경제학 석사 - 前 산시성 웨이난(渭南)시 당서기
	간쑤(甘肅)성	류웨이핑 (劉偉平)	1953	- 세계경제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칭하이성 부성장, 간쑤성 부성장	왕싼윈 (王三運)	1952	- 경제학 석사 - 前 안후이성 성장, 現 간쑤성 당서기	펑젠션 (馮健身)	1952	- 공학 박사 - 前 재정부 부장조리, 간쑤성 부성장
	칭하이(靑海)성	뤄후이닝 (賈惠寧)	1954	- 경제학 박사 - 前 안후이성 당 선전부 부장, 칭하이성 부성장	창웨이 (張衛)	1953	- 공학 석사 - 前 베이징시 공안국 국장, 現 칭하이성 당서기	런칭자 (仁青加)	1954	- 경제관리학 학사 - 前 칭하이성 당 통전부 부장 - 소수민족(장족)
	닝샤(寧夏)자치구	왕정웨이 (王正偉)	1957	- 법학 박사 - 前 닝샤자치구 부주석	장이 (張毅)	1950	- 경제학 학사 - 前 중앙기술검사위원회 부서기, 現 닝샤자치구 당서기	치통성 (齊同生)	1952	- 화공기계학 학사 - 前 닝샤자치구 부주석
	신장(新疆)자치구	누얼·바이커리 (努爾·白克力)	1961	- 정치치리론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시장 - 소수민족(위구르족)	아이리경·이밍바하이 (艾力更·依明巴海)	1953	- 공업 학사 - 前 신장자치구 부주석	누얼란·아부두만진 (努爾蘭·阿不都滿金)	1962	- 정치학 대학원과정 이수 - 前 신장자치구 부주석 - 소수민족(카자흐족)

주: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들이 올해 양회에서 새로 선출된 인사임.
자료: 각종 언론보도.

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지난 5년의 경제실적

■ 지난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대부분 두 자릿수를 달성하였으며, 전국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함.

- 집계 가능한 26개 지역 중 베이징, 상하이, 저장(浙江) 등 3개 연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지방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2.9%로 전국 평균 수준인 9.2%보다 3.7%포인트 웃돌고 있음.

- 권역별로는 서부지역이 14%, 중부가 13.7%, 동북이 13.2%, 화북이 11.8%, 화남이 11.5%이고, 화동이 9.2%로 가장 낮음.

○ 상위 5위권 중 윈난(23.2%), 톈진(天津, 16.1%), 충칭(15.3%), 네이멍구(15.1%), 산시(14.9%)가 진입했는데, 톈진을 제외하곤 모두 서부와 중부 내륙지역이었음.

■ 투자, 소비, 무역 중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지난 5년간 투자에 의존한 성장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성장률이 높은 내륙(동북·중부·서부) 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연해(화북·화동·화남) 지역보다 높은 데서도 알 수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로 외부수요가 부진함에 따라 무역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성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로는 화동지역의 무역 증가율이 가장 낮음.

■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는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조한 증가율을 보임.

- 수출입총액으로 보면 충칭과 허난, 쓰촨, 장시(江西)의 대(對)한국 무역이 20% 이상 증가하였고, 9개 지역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한국에 대한 수출이 20% 이상한 증가한 지역도 광둥(廣東), 장시, 충칭 등 세 곳에 불과함.

- 한국에서의 수입은 수출보다는 양호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성별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린, 베이징, 상하이, 푸젠(福建), 안후이, 후난(湖南), 쓰촨, 산시(陝西) 등 8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함.

○ 산시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193.4%로 상당히 높는데, 이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시안(西安)에 70억 달러의 반도체 공장을 1차 착공한 것에 기인함.

표 2. 2012년 주요경제지표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GRDP (억 위안)	고정자산 투자 (억 위안)	소비재 소매총액 (억 위안)	대외무역(백만 달러)						한국의 대중 투자 (백만 달러)	도시 주민소득 (위안)	농촌 주민소득 (위안)
					수출입총액		수출		수입				
					전체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24,800	-	-	117,581	9,575	52,196	5,708	65,385	3,867	1,669	23,223	9,384
	지린(吉林)성	11,938	40,000	-	24,437	731	5,981	421	18,455	310	502	20,208	8,598
	헤이룽장(黑龍江)성	-	-	-	28,206	633	9,911	561	18,296	72	45	-	-
화북	베이징(北京)시	17,801	6,463	7,703	128,611	10,576	31,302	1,048	97,309	9,528	1,894	36,469	16,476
	톈진(天津)시	12,885	8,871	3,921	122,844	19,952	49,113	4,669	73,731	15,283	977	-	-
	허베이(河北)성	26,575	-	-	82,278	3,846	37,337	2,938	44,941	908	88	20,543	8,081
	산둥(山東)성	50,013	30,320	19,175	295,660	31,670	135,998	13,879	159,663	17,791	2,981	25,755	94,466
화둥	상하이(上海)시	20,000	-	-	434,103	23,116	193,571	6,520	240,532	16,596	1,101	40,188	17,401
	장쑤(江蘇)성	54,000	-	-	589,852	55,632	334,778	16,365	255,073	39,267	3,355	19,600	12,200
	저장(浙江)성	34,606	17,096	13,546	348,221	14,048	244,793	5,858	103,429	8,190	545	34,550	14,552
화남	푸젠(福建)성	19,702	12,710	-	145,699	5,794	88,813	2,680	56,887	3,114	137	28,055	9,967
	광둥(廣東)성	57,000	76,800	22,700	1,049,194	61,853	636,254	20,676	412,940	41,177	991	-	-
	하이난(海南)성	2,855	2,145	-	14,575	146	2,814	52	11,761	94	12	20,918	7,408
중부	산시(山西)성	12,000	9,176	4,367	16,619	863	8,453	645	8,166	218	133	20,412	6,357
	안후이(安徽)성	17,212	15,055	5,686	33,002	1,312	20,649	536	12,352	776	87	21,024	7,161
	장시(江西)성	12,949	-	4,006	30,231	1,021	20,016	787	10,215	234	222	-	-
	허난(河南)성	30,000	-	-	54,354	4,986	31,944	776	22,409	4,210	46	-	-
	후베이(湖北)성	22,200	16,504	9,197	32,426	929	18,762	510	13,665	419	40	20,840	7,852
	후난(湖南)성	22,000	49,000	-	21,000	988	12,208	657	8,793	331	264	21,300	7,440
서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16,000	13,000	-	13,979	392	5,394	378	8,585	14	-	23,150	7,611
	광시(廣西)자치구	13,000	-	-	40,825	503	9,212	268	31,613	235	-	-	-
	충칭(重慶)시	11,459	33,400	3,961	45,242	1,171	31,042	349	14,201	822	-	22,968	7,383
	쓰촨(四川)성	23,850	-	-	49,601	3,327	30,132	531	19,470	2,796	108	20,307	7,001
	구이저우(貴州)성	6,802	7,809	2,032	5,045	70	3,144	64	1,901	6	10	18,700	4,735
	윈난(雲南)성	-	-	-	12,122	103	5,428	75	6,694	28	21	-	-
	티벳(西藏)자치구	701	660	258	2,114	3	2,023	3	92	0	-	18,056	5,645
	산시(陝西)성	14,451	12,840	4,331	15,188	633	8,497	409	6,691	224	107	20,734	5,763
	간쑤(甘肅)성	5,569	6,000	1,910	7,167	102	1,829	83	5,338	19	16	17,237	4,495
	칭하이(青海)성	1,885	1,920	470	815	22	428	15	387	7	1	17,566	5,364
	닝샤(寧夏)자치구	2,327	2,110	-	2,673	148	1,875	141	798	7	-	19,831	6,180
신장(新疆)자치구	7,500	6,258	1,800	33,004	92	14,264	46	18,739	46	-	18,151	6,442	

주: 한국의 대중국 성별 투자액은 5년 누계 투자금액(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이며, 연평균 증가율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임. 투자에서 충칭은 쓰촨에 포함됐으며, 5개의 자치구는 하나로 합쳐져 나와 생략함.
 자료: 지역별 2013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정리. 단 무역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 투자데이터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임.

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표 3. 지난 5년간(2007~12년) 주요경제지표의 연평균 증가율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GRDP	고정자산 투자	소비재 소매총액	대외무역						한국의 대중 투자	도시 주민소득	농촌 주민소득
					수출입총액		수출		수입				
					전체	대한국	전체	대한국	전체	대한국			
동북	랴오닝(遼寧)성	12,5	-	-	12,5	5,1	7,9	3,6	17,3	7,7	-22,5	13,7	14,9
	지린(吉林)성	13,8	-	19,0	16,7	-4,4	8,2	-9,9	20,5	8,4	22,6	12,4	15,4
	헤이룽장(黑龍江)성	-	-	-	8,9	-0,5	-0,3	0,9	16,9	-8,8	-74,4	-	-
화북	베이징(北京)시	9,1	14,8	12,0	9,4	8,4	0,7	-2,1	13,4	10,1	4,9	-	-
	톈진(天津)시	16,1	34,0	19,6	10,2	8,9	5,1	3,6	14,5	10,8	-23,9	12,6	12,1
	허베이(河北)성	10,6	-	-	19,0	5,7	11,3	4,9	28,8	8,5	-29,6	15,1	17,6
	산둥(山東)성	11,4	22,3	18,1	16,0	6,8	11,7	5,7	20,6	7,7	-13,0	12,5	13,6
화동	상하이(上海)시	8,8	-	-	9,6	7,3	7,1	7,5	12,0	7,2	4,2	14,0	14,0
	장쑤(江蘇)성	-	-	-	9,6	7,8	10,0	9,0	9,2	7,4	-25,0	12,6	13,2
	저장(浙江)성	9,6	17,3	16,7	11,8	6,8	12,3	7,7	10,7	6,2	-6,0	7,7	8,5
화남	푸젠(福建)성	12,6	-	-	14,1	8,7	12,6	15,0	16,8	4,6	78,9	-	-
	광둥(廣東)성	10,2	12,0	16,1	10,0	16,4	11,3	29,6	8,1	12,0	-24,9	11,3	13,4
	하이난(海南)성	11,8	35,1	-	15,6	11,4	11,1	-2,8	16,8	30,3	-19,6	13,7	14,3
중부	산시(山西)성	14,9	25,4	18,1	1,8	-6,0	-2,6	-9,5	8,0	14,5	-56,1	12,5	11,2
	안후이(安徽)성	13,2	-	-	16,0	13,6	19,5	7,4	11,3	19,5	8,7	-	-
	장시(江西)성	-	-	-	24,0	21,3	29,6	30,6	16,1	5,2	-45,3	-	-
	허난(河南)성	-	-	-	30,7	38,5	28,5	-1,8	34,4	100,8	-4,7	8,4	9,9
	후베이(湖北)성	13,4	30,7	-	16,2	4,1	18,5	0,2	13,5	10,4	-68,3	-	-
	후난(湖南)성	13,3	27,7	18,1	15,5	12,3	13,1	9,3	19,5	20,4	86,4	11,6	13,8
서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15,1	24,1	-	8,8	-1,9	7,2	-1,1	9,9	-15,8	-	13,2	14,0
	광시(廣西)자치구	13,0	-	-	31,2	8,3	13,4	8,2	41,5	8,4	-	-	-
	충칭(重慶)시	15,3	-	18,8	44,6	44,0	49,1	28,1	37,0	56,3	-	12,8	16,0
	쓰촨(四川)성	13,6	-	-	29,3	35,2	32,5	12,1	25,1	44,9	0,6	16,6	19,5
	구이저우(貴州)성	12,8	35,9	18,8	9,6	-10,9	9,1	-9,9	10,5	-18,8	-57,6	11,9	14,9
	윈난(雲南)성	23,2	-	-	6,7	-0,2	5,0	0,5	8,2	-2,0	-44,3	13,0	15,5
	티벳(西藏)자치구	12,0	-	17,0	46,2	-	47,5	-	27,7	-	-	10,2	15,0
	산시(陝西)성	12,9	28,1	16,0	13,0	-4,6	9,8	-11,1	18,1	28,5	193,4	13,6	14,6
	간쑤(甘肅)성	-	-	-	4,4	-23,1	1,6	-25,6	5,4	6,3	-15,8	11,5	14,1
	칭하이(青海)성	12,3	33,9	16,1	3,7	-17,3	8,2	-23,4	-0,2	-	-	12,6	16,4
	닝샤(寧夏)자치구	12,3	31,5	-	6,4	1,3	6,7	1,2	5,5	3,1	-	12,8	14,2
	신장(新疆)자치구	12,0	35,0	15,5	16,4	13,9	5,8	15,9	31,8	12,1	-	17,0	18,4

주: 한국의 대중국 성별 투자액은 5년 누계 투자금액(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이며, 연평균 증가율 기간은 2007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임. 투자에서 충칭은 쓰촨에 포함되었으며, 5개의 자치구는 하나로 합쳐져 나와 생략함.
 자료: 지역별 2013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정리. 단 무역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 투자데이터는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임.

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과반수 지역의 주민소득이 경제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촌주민소득의 경우 대부분 경제성장률이나 도시주민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함.
- 집계 및 비교 가능한 22개 지역 중 13개 지역의 도시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으며, 농촌주민 소득 증가율의 경우 19개 지역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률보다 높았음.

4. 2013년 경제발전 목표와 경제운영 방향

가. 경제발전 목표

- 2013년에도 지방 평균 경제성장률은 10%를 넘어설 전망이다.
- 24개 지역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지역 목표치를 평균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10.6%에 달함.
 - 랴오닝(遼寧), 베이징,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상하이, 저장, 광둥 등 7개 지역만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한 자릿수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함.
 - 권역별로는 서부의 평균 성장률 목표치가 12%로 가장 높았고, 동북이 10.8%, 중부가 10%로 그 뒤를 이었으며, 화남과 화북, 화동은 각각 9.7%, 9.6%, 8.5%로 한 자릿수에 머무름.
- 2012년 지방 성장률 목표치 평균이 11.1%인 것과 비교하면 2013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전망함.
 - 19개 지역의 2013년 성장률 목표치가 2012년과 동일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은 2012년보다 낮았으며, 2012년보다 높은 지역은 한 곳도 없음.
- 투자, 소비, 무역의 증가율 목표치를 비교해볼 때 지방정부는 여전히 투자 중심의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집계 가능한 29개 지역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지방의 평균 투자 증가율 목표치는 20.5%이며, 헤이룽장, 구이저우, 간쑤, 신장 등 내륙지역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30%를 목표로 함.
 - 소비 증가율 목표치는 11~18%로 지역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지방 평균은 15%임.
- 소비자물가지수는 하이난(海南)만이 5%로 높게 설정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4% 이내 혹은 중앙 정부 목표수준으로 통제할 계획임.
 - 하이난은 2010년부터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전국의 물가상승률이 5.4%인 데 비해 하이난은 6.1%를 기록함.

■ 대부분 지역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을 경제성장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세움.

-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치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보다 낮게 책정된 지역은 베이징과 허난⁶⁾
- 또한 모든 지역에서 농촌주민소득을 도시주민소득과 같거나 빠른 속도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가짐.
 - 지방 평균 도시와 농촌의 주민소득 증가율 목표치는 각각 11%와 11.9%로 농촌이 도시보다 0.9%포인트 높음.
- 권역별로는 도시와 농촌 주민소득 모두 서부의 평균 목표치가 가장 높고(각각 12.5%와 13.9%), 동북(각각 11.3%와 11.3%)과 중부(각각 10.6%와 10.7%)가 그 뒤를 따르고 있어 내륙지역의 소득이 더 빠르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GRDP 1만 위안당 에너지 소비량과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함.

-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 저장, 광시(廣西), 산시 등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명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량 감축률은 2~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률은 1~5.7%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외 여러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하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힘.

나. 경제운영 방향

■ 향후 5년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각 지역은 2013년에도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를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나갈 계획임.

- 각 지역의 '정부업무보고'에는 경제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음.

1) 경제발전방식 전환

■ 경제발전방식 전환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 양회에서 해마다 거론되는 최대 중점 임무로, △ 내수 확대 △ 산업고도화 △ 지역균형발전 △ 생태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됨.

6) 톈진과 티벳자치구의 경우 도시주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농촌주민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목표치가 높음.

2013년 중국 지방 양회(兩會)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표 4. 2013년 지역별 주요경제지표 증가율 목표치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거시경제지표						기타 참고지표			
		GRDP	고정자산투자	소비재 소매총액	대외무역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	도시주민소득	농촌주민소득	에너지 소비량	오염물질 배출량
동북	랴오닝(遼寧)성	9.5	20	15	10(수출)	3.5	4.3	10	10	-	-
	지린(吉林)성	12	20	15	-	3.5	4.6	12	12	3	-
	헤이룽장(黑龍江)성	11	30	15	8	3.5	4.6	12	12	3.5	-
화북	베이징(北京)시	8	9	11	-	4	2	7.5	7.5	2	2~2.5
	톈진(天津)시	12	13	14	10	3.5	3.8	10	13	4	2
	허베이(河北)성	9	20	15	5(수출)	3.5	4.5	9	9	3	2~5.7
화동	산둥(山東)성	9.5	17	15	8	3.5	4	10	10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상하이(上海)시	7.5	-	-	-	중양 목표치 이내	4.5	>7.5	>7.5	한층 감소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장쑤(江蘇)성	10	18	15	5	3.5	4	10	10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화남	저장(浙江)성	8	-	-	-	3.5	4	8	8	3.5	2~4
	푸젠(福建)성	11	20	15	5(수출)	3.5	4.2	11	11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광둥(廣東)성	8	15	12	5	3.5	3.5	8	>8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부	하이난(海南)성	10	20	14	-	5	-	10	11	-	-
	산시(山西)성	10	22	15	-	3.5	4.2	10	10	3.5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안후이(安徽)성	10	20	14	15	3.5	4.5	12.5	13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장시(江西)성	10	20	15	10	3.5	4.5	12	12	-	-
	허난(河南)성	10	21	16	15	3.5	-	9	9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후베이(湖北)성	10	20	15	5	4	4.6	10	10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서부	후난(湖南)성	10	23	15	12	3.5	4.6	10	10	-	-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12	18	16	-	3.5	-	12	12	3.2	-
	광시(廣西)자치구	11	20	15	15	4	4.5	13	14	3	1~3.1
	충칭(重慶)시	12	18	15	25	3.5	-	12	14	3.3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쓰촨(四川)성	11	14	14	11	3.5	4.5	14	15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구이저우(貴州)성	14	30	18	20	중양 목표치 이내	4.2	14	16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윈난(雲南)성	12	23	18	16	3.5	4.5	12	14	3.2	-
	티벳(西藏)자치구	12	18	-	-	3.5	2.5	8	13	-	-
	산시(陝西)성	12.5	25	16	10	4	4.5	14	15	3.5	2~4
	간쑤(甘肅)성	12	30	16	8	3.5	4	15	15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신장(新疆)자치구	칭하이(青海)성	12	20	15	10	4	3.8	12	14	중양 하달 목표 달성	중양 하달 목표 달성
	닝샤(寧夏)자치구	12	20	16	8	3.5	4.5	12	12	-	-
	신장(新疆)자치구	11	30	16	10	4	4	12	13	-	-

자료: 지역별 2013년 「정부공작보고」에서 정리.

■ 내수 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서는 투자구조 최적화, 민간 소비능력 향상, 쇼핑 형태의 다양화와 새로운 소비 분야 육성, 소비확대정책 실시, 소비환경 개선, 도농 상품유통 활성화 등을 강조함.

- 각 지역에서는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 개선, 인프라 건설, 환경보호 분야 등의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투입이 많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산업과 생산과잉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로 함.
- 쇼핑 형태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쇼핑, 신용구매, 전자상거래, 체인 경영, 물류 배송 등을 적극 발전시킬 계획임.
- 새롭게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통적으로 견인력이 강한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세부업종을 밝힌 20개 지역의 계획을 살펴보면 관광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와 양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제품 소비를 보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제품, 자동차, 가전 등이 주를 이룸.

표 5.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소비 분야의 지역간 비교

성·직할시·자치구	서비스 소비	제품 소비
베이징(北京)시	문화, 오락, 훈련, 가정, 의료보건, 비즈니스, 전시, 레저, 부동산	가구
산둥(山東)성	양로, 가정, 관광, 문화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저장(浙江)성	레저, 관광	-
푸젠(福建)성	문화, 관광, 양로, 정보, 건강, 레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광둥(廣東)성	관광, 건강, 정보, 부동산	전자정보, LED, 신에너지자동차, 절전형 가전,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소형차, 고효율 전기기기
하이난(海南)성	관광, 부동산	농산품
산시(山西)성	가정, 양로, 문화, 오락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자동차, 가전, 주택 인테리어
안후이(安徽)성	문화, 스포츠, 관광, 레저	에너지 절약, 자동차, 농기구, 가전
장시(江西)성	문화, 관광, 건강, 가정, 양로	-
후베이(湖北)성	문화, 관광, 가정, 양로, 레저, 건강	절전형 가전, 자동차, 건강재,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후난(湖南)성	가정, 양로, 훈련, 부동산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자동차, 절수, 태양에너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전자정보, 교육훈련, 문화, 오락, 레저, 관광, 가정, 스포츠, 건강	-
광시(廣西)자치구	관광, 부동산	-
충칭(重慶)시	가정, 양로, 건강, 관광	자동차, 가전
쓰촨(四川)성	관광, 레저, 문화, 교육, 건강의료, 가정, 양로, 부동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자동차
윈난(雲南)성	양로, 관광, 문화, 부동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티벳(西藏)자치구	-	가전, 가구, 자동차
산시(陝西)성	문화, 레저, 스포츠, 건강, 부동산	자동차
칭하이(青海)성	양로, 의료보건	-
닝샤(寧夏)자치구	컨설팅, 전시 컨벤션, 디자인, 양로, 관광, 부동산	-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는 가전하향, 에너지 절약제품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지역 특색이 있는 소비확대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 가령 랴오닝에서는 심야경기 활성화를, 장시와 산시에서는 엄격한 유급휴가제도 실시를 강조함.

표 6. 지역별 소비확대정책

성·직할시·자치구	소비확대정책
랴오닝(遼寧)성	심야경기 활성화
베이징(北京)시	가구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
광둥(廣東)성	절전형 가전과 배기량 1.6리터 이하의 소형차 및 고효율 전기기기 등의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정책
안후이(安徽)성	에너지 절약제품 보조금 정책
장시(江西)성	유급휴가제도
후베이(湖北)성	절전형 가전제품과 자동차 이구환신 및 전자재하향 보조금 정책
후난(湖南)성	상(湘)산업을 발전시켜 상(湘)상호(브랜드)를 널리 알림
충칭(重慶)시	자동차 하향과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티벳(西藏)자치구	가전·가구 하향과 가전·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정책
산시(陝西)성	유급휴가제도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 산업고도화는 농업의 현대화, 공업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것임.

- 공업구조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통산업 개조 및 구조조정과 함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업화와 정보화를 융합시키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장시는 2013년 전략적 신흥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16%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중앙정부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⁷⁾ 육성계획에 맞춰 지역별로 3개 이상의 신흥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며, 일부는 해당 산업의 하위 세부업종까지 밝히고, 일부는 중앙과는 다른 산업을 포함시킴.
 - 첨단장비 제조와 관련하여 산시는 고속열차와 신에너지 자동차에, 장시와 산시는 항공우주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후난은 중앙정부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문화창의산업을 신흥산업의 하나로 중점 육성할 계획임.
- 업종별로는 신소재와 첨단장비 제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음.
 - 업종을 밝힌 17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신소재를, 13개 지역이 첨단장비 제조를 꼽았음.

7) 중앙정부가 발표한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 차세대 정보기술 △ 바이오 △ 첨단장비 제조 △ 신에너지 △ 신소재 △ 신에너지 자동차임.

- 또한 각 지역에서는 서비스업 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바, 일부는 서비스업을 지주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일부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조치를 발표함.
 - 베이징은 관광산업을 지주산업으로, 푸젠(福建)은 물류, 금융, 관광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지린은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장진입과 재정, 세금감면, 토지이용 등 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후난은 이에 덧붙여 금융 면에서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정부가 특별히 장려하는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을 공업과 동일하게 부과하겠다고 약속함.
- 세부업종별로는 문화와 관광산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 금융이나 물류 등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특히 관광산업은 거의 모든 지역(업종을 밝힌 28개 지역 중 26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임.
 - 문화산업 육성과 관련 장시는 인쇄, 오락, 창의문화, 디지털 출판 등 하위 세부업종까지 명시하고 있음.
 - 유통산업과 관련하여 라오닝, 저장, 안후이, 쓰촨 등 7개 지역에서 전자상거래를 강조하는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음.

표 7.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의 지역간 비교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동북	랴오닝(遼寧)성	-	유통(전자상거래 등), 물류, 관광, 전시 컨벤션, 부동산
	지린(吉林)성	-	관광, 문화창의, 부동산, 물류
	헤이룽장(黑龍江)성	신소재, 바이오, 선진장비제조	금융, 정보, 유통(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외주, 숙박, 요식, 가정, 양로, 관광, 물류
화북	베이징(北京)시	차세대 정보기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유통, 금융, 정보, 기술, 관광
	톈진(天津)시	-	-
	허베이(河北)성	-	운수, 중개, 컨설팅, 정보, 소프트 외주, R&D, 건축 노무, 유통(전자상거래 등), 의료, 가정, 취업, 양로, 건물관리, 스포츠건강, 금융, 관광, 서비스 외주
	산둥(山東)성	-	-
화동	상하이(上海)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금융, 항공, 전시 컨벤션, 정보, 전문, 중개, 기술, 유통
	장쑤(江蘇)성	-	-
	저장(浙江)성	첨단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정보, 신에너지, 신소재	유통(전자상거래 등), 금융, 물류, 정보, 관광, 레저, 서비스 외주, 문화창의
화남	푸젠(福建)성	-	물류, 금융, 관광
	광둥(廣東)성	-	금융, 물류, 정보, 기술, 유통, 전시 컨벤션, 문화창의, 서비스 외주, 관광, 건강
	하이난(海南)성	신에너지, 신소재,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관광, 부동산, 금융
중부	산시(山西)성	첨단장비 제조(고속열차, 신에너지 자동차), 신소재,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바이오, 차세대 정보기술	관광, 금융, 물류, 정보통신
	안후이(安徽)성	신형 디스플레이, 실리콘소재, 첨단장비 제조	물류, 공업디자인, 정보, 유통(전자상거래 등), 가정, 양로

표 7. 계속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전략적 신흥산업	서비스업
중부	장시(江西)성	신에너지, 신소재, 항공제조,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물류, 금융, 문화(인쇄, 오락, 창의문화, 디지털 출판), 관광
	허난(河南)성	-	물류, 관광, 부동산, 금융
	후베이(湖北)성	이동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간 인터넷, 3D 인쇄, 공간지리정보	금융보험, 물류, 정보, 기술, 컨설팅, 서비스 외주, 관광
	후난(湖南)성	선진장비제조, 신소재, 문화창의, 바이오, 신에너지, 정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물류, 금융, R&D, 디자인, 유통, 문화, 관광
서부	내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신에너지, 신소재, 선진장비 제조, 바이오	물류, 금융, 관광, 전시 컨벤션, 정보, 컨설팅, 부동산, 지역사회 서비스
	광시(廣西)자치구	장비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서비스 외주, 부동산, 관광
	충칭(重慶)시	-	금융, 물류, R&D, 디자인, 기술, 전시 컨벤션, 유통, 요식, 사물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컨설팅, 문화창의, 전문 가정, 양로, 건강, 관광
	쓰촨(四川)성	-	물류, 유통(전자상거래 등), 금융보험, 가정, 양로, 사물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문화창의, 관광, 지역사회 서비스
	구이저우(貴州)성	신소재,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관광, 문화, 금융, 물류, 전시 컨벤션, R&D, 디자인, 소프트웨어, 지역사회 서비스
	윈난(雲南)성	바이오, 광전자, 첨단장비 제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소재, 신에너지	물류, 관광, 유통, 금융, 전시 컨벤션
	티벳(西藏)자치구	-	관광, 문화, 물류, 유통(전자상거래 등), 금융보험, 부동산
	산시(陝西)성	항공우주,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물류, 유통(전자상거래 등), 문화, 관광, 금융
	간쑤(甘肅)성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정보기술, 선진장비 제조	문화, 관광, 물류, 유통(전자상거래 등), R&D, 디자인, 가정, 양로
	칭하이(青海)성	-	관광, 문화, 금융, 양로, 물류, 유통, 의료보건
	닝샤(寧夏)자치구	-	컨설팅, 전시 컨벤션, 디자인, 금융, 양로, 관광, 부동산
	신장(新疆)자치구	신에너지, 신소재, 선진제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바이오의약, 전자정보	금융, 물류, 정보, 기술, 전시 컨벤션, 서비스 외주, 중개, 유통, 의료, 부동산, 가정, 양로, 관광, 문화, 레저, 스포츠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과 생태 건설도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은 도시화, 도농간 균형발전 등을 통한 지역간 격차 축소를 의미하며, 도시화 추진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함.
-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자원 절약과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태 건설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기오염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대기오염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함.
 - 많은 지역에서 직경 2.5 μ m 이하 초미세 먼지(PM 2.5)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 베이징은 18만 대의 노후차량을 폐차시키고 신에너지 자동차를 관용차량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인접한 허베이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대기 중(重)오염 응급 관리방법」을 제정하기로 함.

2) 민생 개선

- 민생 개선과 안정도 각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이며, 민생 개선 중점사업으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보장성주택 건설을 강조함.
 - 산시는 신규 증가 재정의 80%를 민생 개선에 사용할 의사를 내비침.
 - 2013년 경제발전 목표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소득을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증대시킬 계획이며, 동시에 농촌주민소득을 도시주민소득보다 빠르게 증대시킬 계획임.
 - 주민소득을 늘리고 빈부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⁸⁾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최저임금기준 인상 계획을 밝힘.
 - 랴오닝, 톈진, 산둥, 광시 등 7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할 계획이며, 특히 광시는 인상률(15%)을 명시함.
 - 또한 일부 지역은 노사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함.
 - 톈진, 상하이, 광둥은 노동분쟁 조정·중재와 노동보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안후이와 허난, 후난은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강조함.
 -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서민주택(보장성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였으며, 건설뿐만 아니라 배분, 입주, 퇴출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동시에 헤이룽장(黑龍江), 산둥, 상하이, 저장, 광둥, 산시 등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을 지속하여 일반상품주택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할 계획임.

표 8. 민생 개선 중점사업의 지역간 비교

민생 개선 중점 사업		성 · 직할시 · 자치구	
소득분배제도 개혁	최저임금기준 인상	베이징, 안후이, 장시, 간쑤, 칭하이, 신장	후난, 네이멍구, 충칭, 쓰촨, 랴오닝, 톈진, 산둥, 허난, 후베이, 광시, 윈난, 산시
노사관계 조정		톈진, 상하이, 광둥, 안후이, 허난, 후난, 간쑤,	
보장성주택 건설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산시, 안후이, 허난, 후베이, 네이멍구, 광시,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벳,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 이 외에 각 지역에서는 취업 확대,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교육의 질 향상 등도 강조함.

8) △ 최저임금기준 인상 △ 임금단체협상제도 실시 △ 평균임금의 정상적인 증가 메커니즘 구축 △ 주민소득 증대와 경제성장 속도 통일 △ 근로보수와 노동생산성 속도 통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주목할 점은 사회보장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양로 서비스를 강조하는 것임.
- 라오닝, 베이징, 톈진, 저장, 후난, 네이멍구, 광시, 충칭 등은 양로서비스 사업과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베이징이 양로산업 선두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눈에 띈.

3) 개혁 심화

■ 각 지역에서는 △ 국유경제 △ 금융 △ 세제 △ 소득분배제도 △ 호적(戶口)제도 △ 재정 분야의 개혁 심화를 강조함.

■ 특히 국유경제 개혁 및 민영경제 활성화는 대부분 지역의 역점사업임.

- 이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국유자산 감독·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중소기업,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계획임.
- 대부분 지역에서 민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이 불명확한 가운데, 몇몇 지역에서는 민간투자 혹은 민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임.
 - 베이징은 여러 분야에서 민간투자 실시세칙을 제정할 계획이고, 허베이는 중앙정부의 ‘신36조’ 실시세칙⁹⁾을 전면 실행할 계획임. 저장은 지방단위의 민간투자 실시세칙을 실행함과 동시에 민간자본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출범할 계획이고, 쓰촨도 민영기업 발전을 장려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할 계획임.
- 민간투자 장려 업종을 명확히 제시한 지역도 있는데, 주로는 인프라와 민생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금융개혁은 △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 △ 지방 금융기관과 민영 금융기관의 발전 가속화 △ 농촌지역에서의 서비스 확대 △ 농촌신용사 개혁 심화 △ 국경간 위안화 결제 확대 △ 은행과 기업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후베이(湖北) 우한(武漢)은 국내외 금융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지방 금융기관과 민영 금융기관을 발전시켜 지역금융 중심으로 성장할 계획이며, 쓰촨은 서부금융 중심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임,
- 무역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둥과 서부지역의 유일한 직할시인 충칭, 서남 변경지역에 위치한 윈난은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할 것을 강조함.
- 허난과 간쑤는 은행과 기업 간의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언급함.

9) 2010년 5월 국무원은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장려·유도에 관한 약간의 의견(國務院關於鼓舞和引導民間投資健康發展的若干意見)」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신36조’라고 부름. 정책을 발표한 지 2년이 되도록 많은 부처들이 시행세칙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2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2012년 상반기 내로 반드시 시행세칙을 발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6월 29일까지 관련된 22개 산업 분야 모두 세칙을 발표함.

■ 각 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 자원세, 환경세 등의 세제개혁도 가속화할 계획임.

- 부가가치세 개혁의 경우 상하이, 베이징, 광둥처럼 이미 시범 실시 중인 지역도 있고, 하이난, 산시, 윈난처럼 준비 중인 지역도 있으며, 장시, 허난처럼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려고 노력하는 지역도 있음.
 - 상하이는 부가가치세 개혁 첫 시범 실시 지역으로 개혁을 심화하여 적절한 시기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정통신업을 개혁 범위에 포함시킬 전망이다.¹⁰⁾
- 수도,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을 개혁하여 자원의 유상 사용과 배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자 함.
- 환경세는 베이징과 광둥의 경우 오수와 쓰레기 처리비용 개혁을 강조하고, 허난과 후베이는 탄소배출통제제도 구축, 탄소배출권 및 오염물질배출권 거래를 강조함.

표 9. 중점 개혁 분야의 지역간 비교

개혁 분야		성 · 직할시 · 자치구
국유경제		랴오닝, 헤이룽장, 베이징, 허베이, 산둥, 상하이, 저장, 하이난, 광둥, 하이난, 산시,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내이명구,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벳, 산시, 간쑤, 칭하이, 신장
소득분배제도		랴오닝, 베이징, 톈진, 산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내이명구, 광시, 충칭, 쓰촨, 윈난, 산시, 간쑤, 칭하이, 신장
호적제도		랴오닝, 광둥, 충칭, 칭하이
금융		지린, 산둥, 광둥, 산시, 안후이, 허난, 후베이, 후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간쑤, 칭하이, 신장
세계	부가가치세	베이징, 톈진, 산둥(준비), 상하이, 광둥, 하이난(준비), 산시(준비), 안후이, 장시(노력), 허난(노력), 후베이, 후난, 윈난(준비), 티벳
	자원세	지린, 베이징, 산둥, 광둥, 산시, 장시, 후베이, 후난, 내이명구,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벳, 간쑤, 칭하이, 신장
	환경 관련세	베이징, 광둥, 산시, 허난, 후베이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표 10. 일부 지역의 민간투자 장려 세부업종

개혁 분야	성 · 직할시 · 자치구
허베이(河北)성	교통, 에너지, 금융, 시정, 위생, 교육
산시(山西)성	철도, 도로, 금융, 에너지, 통신, 시정, 교육, 의료
후베이(湖北)성	인프라, 교육, 의료위생
내이명구(內蒙古)자치구	에너지, 철도, 금융, 시정, 교육, 의료
산시(陝西)성	교통, 수리, 시정, 교육, 의료
신장(新疆)자치구	인프라, 우위자원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10) 2011년 10월 중앙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의 교통운수업, R&D 및 기술 서비스, 문화창의의 등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해 징수한다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노수연·이상희(2012), 「상하이시 부가가치세 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중국성별동향브리핑 제11-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4) 대외개방 확대

- 각 지역에서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외무역방식을 전환하며,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대외무역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지역은 수출입의 조화로운 발전, 서비스무역 비중 확대, 신흥시장 개척 등을 제시함.
 - 새로운 수출 분야를 육성하고 수출상품의 브랜드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동시에 선진 기술과 설비, 핵심 부품,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을 장려하고 양질의 소비재 수입도 확대할 계획임.
 - 신흥 제품 및 서비스 수출 확대와 관련하여 몇몇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업종을 제시함.
 - 광둥은 수출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용대출 보증, 수출환급세 등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 산둥, 저장,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한 무역 대성(大省)들이 국제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됨.

표 11. 일부 지역의 신흥 수출 확대 분야

성 · 직할시 · 자치구	업종
베이징(北京)시	자동차, 의료기계, 서비스 외주, 문화창의, 소프트웨어
광둥(廣東)성	운수, 관광, 문화창의, 정보기술, 디자인, 컨설팅, 중의약, 서비스 외주
후난(湖南)성	소프트웨어, 기술, 문화, 중의약
산시(陝西)성	전자정보, 항공기 및 그 부품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 외자 유치의 경우 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별적인 유치를 통해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임.
 - 대부분의 지역이 서비스업, 선진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를 장려함.
 - 허난이 유일하게 기술집약형 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 유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치를 모두 중요시한다고 밝혔으며, 외자 유치 중점 분야를 제시함.
 - 중점 분야는 전자정보·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식품·가전·가구·복장 및 신발 제조·건자재·금속제품 등임.

-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을 통해 수출 견인, 자원 확보, 선진기술 획득 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베이징·상하이·충칭 등 대도시와 후베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부, R&D센터, 운영센터 등의 설립을 장려함으로써 본부 경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며, 상하이는 관련 정책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힘.

5) 지역 특화 이슈

■ 상술한 공통 이슈 외에 일부 지역은 특화된 이슈를 갖고 있음.

- 가령 텐진은 올해에도 빈하이신구 개발과 개방을 가속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허베이는 차오페이톈(曹妃甸) 등의 신규 건설을 통한 연해지역 우선 발전을 강조함.
-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만과 인접한 푸젠은 해양경제 발전과 함께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중요시하고 있음.

표 12. 일부 지역의 특화 이슈

성 · 직할시 · 자치구	특화 이슈
텐진(天津)시	빈하이(濱海)신구 개발과 개방 가속화
허베이(河北)성	연해지역 우선 발전
저장(浙江)성	해양경제 발전, 저우산(舟山)군도신구 건설, 이우(義烏)국제무역종합개혁 심화, 윈저우(溫州)금융종합개혁 추진
푸젠(福建)성	해양경제 발전, 대만과의 경제협력 강화
하이난(海南)성	해양경제 발전
산(山西)성	「전환종합개혁시범구방안(轉型綜改試驗區總體方案)」 실시
충칭(重慶)	싼샤공정(三峽工程) 후속사업 강화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신구 건설 가속화

자료: 지역별 「정부업무보고」에서 정리.

5. 평가 및 시사점

- 중국이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위해 내수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여전히 투자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음.
- 이처럼 각 지방정부가 여전히 투지에 의한 성장을 강조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중국 심계서(審計署,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채무는 GDP의 약 27% 수준인 10.7조 위안에 달함.¹¹⁾
- 개혁개방 이래 중국 부동산시장은 주택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²⁾ 등이 겹치면서 빠르게 성장함.
-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2011년 11월부터 상하이, 광둥, 저장, 선전 네 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나,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가 채권발행을 남발할 경우 재정이 더욱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2012년 6월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다시 금지한 바 있음.

- 국유경제 개혁이 가장 중요한 개혁 임무로 대두됨에 따라 일부 지역이 중앙의 민간투자 장려 실시세칙을 따르는 한편, 지방별 구체적인 활용세칙을 출범할 계획이어서, 지방의 민간투자 유치 업종이나 방식 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중국 민영기업들도 중앙의 세칙보다는 지방의 활용세칙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음.
 - 이는 중앙 세칙의 진입범위, 투자방식, 시행조치가 과거에 비해 구체화되었으나,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임.¹³⁾

- 내수 확대를 위해 각 지방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삼아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하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소비시장 육성 분야와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각 지방정부는 공통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서비스 분야의 소비를 늘리고자 하나, 지역별로 구체적인 중점 육성산업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제품, 가전제품 등 소비 분야와 관련한 소비확대정책 시행에도 지역간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각 지방정부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신흥산업과 서비스업을 크게 발전시킬 계획이므로 관련 산업의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하나, 이 역시 지역별 차이에 주목해야 함.

11) 中國審計署(2011), 「2011年 第35號 全國地方政府性債務審計結果」.

12)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40% 이상을 토지양도금에 의존하고 있음.

13) 문익준(2012. 8), 「중국 42개 부문의 민간투자 시행세칙 발표」, 중국전문가포럼 이슈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신소재 같은 일부 전략적 신흥산업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나, 해당 산업의 특정 지역 진출 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지역은 전략적 신흥산업과 자신의 우위산업을 연결시키고 있으므로 해당 신흥산업의 하위 세부업종까지 꼼꼼히 분석해야 함.
-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 물류, 금융과 같은 생산성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려 하며 △ 문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중점 육성 서비스업에 지역간 차이가 있으므로 그러한 차이를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함.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지역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각 지역에서 대기오염 처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해당 분야의 진출 전망이 밝음.

- 스모그 현상으로 공기청정기 같은 상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베이징 시내 백화점에서는 고가의 공기청정기, 휴대가 간편한 차량용 및 탁상용 공기청정기 등의 인기가 높음.¹⁴⁾
- 베이징은 전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⁵⁾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향후 몇 년간에 걸쳐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외국 자동차업체와 신에너지 자동차업체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 로컬 자동차업체들은 기술수준이 낙후하여 중국 당국이 제시한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임
 -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자동차 구입제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베이징의 경우 신에너지 자동차는 구매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음.

■ 각 지역에서 민생 개선과 안정을 강조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회와 위험요인을 잘 포착해야 함.

-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는 소비 수요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농촌주민소득을 도시주민소득보다 빠르게 증대시킬 계획이어서 농촌 소비시장도 차츰 활성화될 전망이다.
- 그러나 최저임금기준의 지속적인 인상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같이 노동법률 환경이 친노동자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은 기업들의 노무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사회보장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양로 서비스 사업과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고, 중국의 노령화 수준⁶⁾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로산업도 진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음. **KIEP**

14) 「中 최악 스모그에 경제피해 일파만파」 (2013. 1. 14), 『매일경제』 .

15) 새로운 기준에 따라 황함유량을 기존의 50ppm에서 1/5 수준인 10ppm으로 낮추게 되는데, 이는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 기준에 상당하는 수치로 중국 대다수 지역의 기준치인 150ppm의 1/15 수준임. 「中 ‘스모그 도시’ 베이징 오염배출車 “짹짹마라”」 (2013. 1. 24), 『아주경제』 .

16) 2011년 중국의 노령화지수는 55.2%, 노령인구 비중은 9.1%에 달함.